https://doi.org/10.5392/JKCA.2018.18.07.291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 검증: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Verification of Spiritual Mediation and Control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Focused on the Baby Boomers

길태영*, 류한수**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Tae-Young Kil(xodud4288@naver.com)*, Han-Su Ryu(hansu@ws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인과관계에서 이들 간 영성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연구 자료는 A시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최종 분석에 총 50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 각 변인 간 가설검증을 위한 매개회귀분석, 영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으며,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 수준에 따라 영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삶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불안을 감소 또는 해소하고,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죽음불안 | 삶의 의미 | 영성 | 매개 및 조절효과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spiritual mediating and the control effects of these between the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in baby boomers. The data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or baby boomers born in A City from 1955 to 1963 and used a total of 500 data for the final analysis. For the analysis method, SPSS 21.0 was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for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mediating regression analysis for each variable hypothesis test, and control effect of spirituality. We conducte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anxiety of death has a significantly effect on the meaning of life. Second, spirituality mediation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meaning of life.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was prov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and the control effect of spiritualit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life. As a result of these, it is demonstrating that the meaning of life can be enhanced by strengthening spirituality according to the degree of death anxiety in baby boomers. It shows a way to reduce or eliminate death anxiety that affects the meaning of life and strengthen spirituality.

■ keyword : | Baby Boomers | Death anxiety | Meaning of Life | Spirituality | Mediation and Control Effect |

접수일자 : 2018년 05월 29일
수정일자 : 2018년 06월 22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06일
교신저자 : 류한수, e-mail : hansu@wsu.ac.kr

I. 서 론

베이비부머는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이며,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로 2017년 기준 약 713만 명(전체인구의 14.6%)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노인대열에 합류하면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인구고령화와 맞물리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1-3].

삶의 의미는 인간이 삶에서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으로[4],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환경 및 초월적인 존재와의 연결에 있어서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삶에 대한 방향으로, 이들의 자아통합에 따른 죽음과 삶의 진정한 의미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5][6].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삶의 의미가 더욱 부각되는 것은 삶의 의미 또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상실감, 무의미감, 불안감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과 실존적 공허와 같은 고통이 수반되는 삶의 위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4][7].

따라서 생활에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베이비부머가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과 실존적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아야만 삶의 의미를 통한 삶의 만족감, 긍정적 정서 및 안녕감, 행복감과의 정적인 관계를 높일 수 있다[6][8][9].

많은 연구에서 죽음불안은 삶의 의미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강조되어 왔다[10]. 죽음불안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국내외의 많은 연구에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주목받았다[11-14].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죽음불안은 죽음 그 자체보다는 삶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희망을 위협받는 것으로[15], 이들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목표, 자신의 삶의 완성, 끊임없는 자기실현을 추구해야 한다[16].

그러나 베이비부머의 안녕과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며 지표인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죽음불안에 따른 삶의 의미의 긍정적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영성은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삶의 가치의 재평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생활양식을 통한 절대자와의 만남(the infinite), 자아초월의 궁극적인 차원, 각 개인이 삶에서 추구하는 의미의 근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시해주는 핵심적인 요소이다[17-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요인이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20-24]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 간의 관계를 예측요인인 것으로 밝혀진 영성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은퇴와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을 다루는 것은 죽음이 삶의 의미에 부여하는 초월성과 가치를 발견하는데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9], 존재로서의 자기실현 및 생애발달을 통한 삶의 의미 증진에 미해결과제를 재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본 연구는 향후 이들의 삶의 의미에 대한 풍부한 해석과 논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은퇴나 사별,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삶의 본질적 중요성을 상실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예측요인인 죽음불안과 영성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이비부머의 삶의 의미

삶의 의미(meaning of life)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의미를 갖고 있으며, 삶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인간의 참된 본질과 가치를 실현해나가는 것이다[4]. 베이비부머가 자기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자아확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의 자기성찰 및 평가는 삶의 특징적인 형태가 된다[25]. 베이비부머는 그들이 계획한 인생에 대한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계획된 삶이 아닌 주어진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어진 삶

에 대한 환멸과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탐색하는 방식보다는 정치·경제의 큰 구조요소에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삶에 대한 주관적 위험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26].

베이비부머가 삶의 의미 감각을 잃으면 감정의 상실로 인해 쓸모없음, 좌절, 의지의 부족과 같은 정신·병리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반대로 이들이 갖는 삶에 대한 의미 있는 감각은 개인의 행복과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며, 일관성 있는 삶의 감각은 건강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27]. 특히 삶의 과정 및 유지와 관련된 기능의 손실 즉, 치명적인 질병, 사별과 상실 등을 겪었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은 의미의 의지와 삶의 의미의 원천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28]. 따라서 심리적, 사회적 측면과 경험적 분야의 다차원적인 접근으로 수많은 경험적 연구에서 영향력이 밝혀진 바 있으며[29-31], 최근에 노년학에서 삶의 만족 및 행복추구와 관련된 심리사회적 기능을 다루면서 베이비부머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은 집중연구의 영역이 되었다[32][33].

2. 죽음불안

죽음불안(death anxiety)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의학이나 간호학을 중심으로 임종과 불안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34]. 죽음불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정신적 타락, 궁극적인 외로움의 느낌, 분리로 인한 불안과 슬픔, 자신의 최후에 대한 상실감, 극단적인 분노에 대한 슬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절망, 사고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반응, 존재의 손실 등 인지적인 관점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다차원적이며 복잡한 구조를 갖는 개념이다[33]. 죽음의 현상은 심리학 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특히 삶의 전반적인 평가와 의미의 맥락에서 볼 때 중년의 베이비부머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35]. 죽음불안은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로 삶에 대한 불안의 기초가 되며, 이들의 죽음불안을 다루는 것은 죽음을 이해하고 삶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죽음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다[36].

베이비부머는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하는 시기로 일과 삶 사이의 균형, 삶의 의미 탐색과 함께 문화, 신념체계 및 생활양식과 같은 다양한 영향에 따라 죽음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 생겨난다[37]. 베이비부머가 변화하는 역할, 삶의 책임, 그리고 인생의 짐까지 이러한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가 더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가족의 상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물질적 부담, 남성성 상실 및 폐경의 발병으로 인해 삶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 죽음불안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38][39]. 따라서 이들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수준을 다루는 것은 사랑과 관용으로 더 성숙하고 내면의 갈등이 없는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37].

3. 영성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인간학 접근의 영성(spiritual)은 자아 초월적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40]. 영성은 부정적 생활사건과 노화 및 죽음에 대한 불안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며, 전인적인 측면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히 베이비부머에게 높은 수준의 영성 유지는 고령화를 대비한 계획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영역이다[32][41]. 영적요구의 해결은 삶의 중요한 측면으로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MacKinlay[29]가 제시한 영적과제모델을 중심으로 주로 사회심리학에 국한되어져 왔다. 베이비부머에게 영성은 삶에서의 부정적 사건과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요인으로 변화하는 삶의 의미, 관계, 초월, 희망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41].

영성은 단기간 내에 변화 또는 향상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18], 중년기의 베이비부머가 고난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동안의 삶을 재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통합으로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면 비로소 영적 성장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미래의 삶을 향한 커다란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게 된다[42].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발달적 관점과 성숙과정을 토대로 삶의 가치와 진리를 재평가하는데 있어서 영성의 발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18].

4. 선행연구 검토

많은 연구들에서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7][14]. 베이비부머가 중년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무의미한 삶의 경향과 관련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도 특정변수인 죽음불안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정신건강기능의 맥락에서 이들을 위한 보호 및 예방적 차원의 심리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43].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바와 같이 베이비부머에게 죽음불안은 삶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이다[10-14][43].

삶의 의미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영성은 삶의 의미의 원천으로 보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측정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삶의 의미가 영성을 통해 향상되었다고 보고되었다[17][21][23][44][45]. 이처럼 높은 수준의 영성 유지는 삶의 의미에 이로운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삶의 의미와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는 주로 자존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성 등과 같은 특성, 정서 및 사고, 일 또는 직무, 건강 및 발달위기, 스트레스 및 외상, 삶의 질, 대인관계 및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요인, 자원봉사활동 및 종교적 대처의 공동체 요인을 살펴본 연구들이 대부분이고,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는 드문 편이다.

Ⅲ.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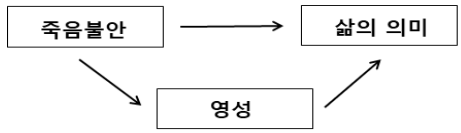

그림 1. 매개효과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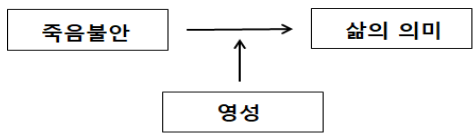

그림 2. 조절효과 연구모형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A광역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2017년 12월~2018년 3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를 고려하여 의도적 임의표본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윤리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동의하는 경우 구조화된 설문지로 연구자가 직접 개별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체 회수된 505부 중 응답이 불분명한 5부를 제외한 총 500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과 같이 성별에서 남성은 243명(48.6%)으로 여성 257(51.4%)명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60세 미만은 227명(45.4%), 60세 이상은 273명(54.6%)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76명(55.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대학교, 중학교, 대학원, 초등학교 졸업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261명(52.2%)으로 없는 사람보다 많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400만원이 172명(34.4%)으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 원대 100명(20%), 400~500만 원대 90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 227명(45.4%), 보통이 204명(40.8%)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 298명(59.6%)으로, 어렵지 않은 편이 109명(21.8%)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잠재변수	측정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43	48.6
	여성	257	51.4
연령	60세 미만	227	45.4
	60세 이상	273	54.6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4	0.8
	중학교 졸업	46	9.2
	고등학교 졸업	276	55.2
	전문대 졸업	86	17.2
	대학교 졸업	77	15.4
	대학원 졸업	11	2.2
종교	있다	261	52.2
	없다	239	47.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57	11.4
	200~300만원 미만	100	20.0
	300~400만원 미만	172	34.4
	400~500만원 미만	90	18.0
	500~600만원 미만	39	7.8
	600만원 이상	42	8.4
주관적 건강상태	좋지 않은 편이다	28	5.6
	보통이다	204	40.8
	좋은 편이다	227	45.4
	매우 건강하다	41	8.2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3	0.6
	어려운 편이다	38	7.6
	보통이다	298	59.6
	어렵지 않은 편이다	109	21.8
	어렵지 않다	52	10.4

3. 측정도구

3.1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측정은 고효진·최지욱·이홍표[46]가 개발한 '한국판 Templer 죽음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죽음에 대한 인지적 측면, 정서적 반응, 신체적 변화에 대한 불안과 시간의 빠른 흐름이 주는 불안에 따른 총 15개 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762이였다.

3.2 삶의 의미

삶의 의미 측정은 Krause[47]가 개발한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개의 차원으로 삶의 가치, 목적의식, 삶의 목표, 과거와의 화해에 따른 총 10개 문항으로 각 문항의 점수 범주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0.847이였다.

3.3 영성

영성의 측정은 Ellison[48]이 개발한 영적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 SWB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2개의 하위 차원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응답변수를 갖는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0.880이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빈도, 평균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검사도구의 각 변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값을 살펴보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 삶의 의미, 영성의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ANC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영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Kenny[49]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인 죽음불안, 영성, 삶의 의미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에서 각 측정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상관계수 산출결과는, 죽음불안은 평균 2.89(SD=0.602), 삶의 의미는 평균 3.21(SD=0.576), 영

성은 평균 3.16(SD=0.385)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인 죽음불안, 영성, 삶의 의미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진 측정변수들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인 죽음불안은 삶의 의미(-0.344, p<.001)와 영성(-0.900, p<.001)에 부적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와 영성은 정적상관(0.364, p<.001)을 보였다.

표 2.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측정변수	M	SD	죽음불안	삶의 의미	영성
죽음불안	2.89	0.602	1		
삶의 의미	3.21	0.576	−0.344***	1	
영성	3.16	0.385	−0.900***	0.364***	1

*p<.05, **p<.01, ***p<.001

2.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에 대한 영성의 매개효과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에 대한 영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Kenny[49]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매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 1에서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34, p<.001). 모형 2에서 죽음불안이 영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90, p<.001). 모형 3에서는 죽음불안과 영성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죽음불안이 종속변인인 삶의 의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고(β=-0.09, p>.05), 매개변인인 영성은 삶의 의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9, p<.001).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1모형에서는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영향을 미쳤지만, 3모형에서 영성이 추가될 때, 죽음불안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를 살펴보면 Z값이 -3.07(p<.01)로 영성의 매개변인의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성을 투입하였을 때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와의 관계가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변인은 완전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4. Sobel test를 이용한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 간 영성의 매개효과 분석

구분	B	S.E.	Z
죽음불안 → 영성	−0.58	0.01	−3.07*
영성 → 삶의 의미	0.43	0.14	

*p<.05

3.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에 대한 영성의 조절효과

삶의 의미에 대한 죽음불안의 영향력을 영성이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조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2모형에서 죽음불안과 영성을 곱한 상호작용 변인을 추가하여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β=-0.38, p<.05). 따라서 영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는 증가하며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이 영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간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효과

모형	종속변인	독립(매개)변인	B	S.E.	β	t	R^2	F
1	삶의 의미	상수	4.16	0.12			0.12	66.760***
		죽음불안	−0.33	0.04	−0.34	−8.17***		
2	영성	상수	4.83	0.04			0.81	2123.03***
		죽음불안	−0.58	0.01	−0.90	−46.08***		
3	삶의 의미	상수	2.09	0.70			0.13	38.42***
		죽음불안	−0.08	0.09	−0.09	−0.89		
		영성	0.43	0.1	0.29	3.00**		

*p<.05, **p<.01, ***p<.001

표 5. 영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조절 분석결과

	모 형	B	S.E.	β	t	R^2	F
1	상수	2.09	0.70				
	죽음불안	−0.08	0.09	−0.09	−0.89	0.13	38.42***
	영성	0.43	0.14	0.29	3.00**		
2	상수	−0.07	1.18				
	죽음불안	0.59	0.31	0.61	1.90	0.14	27.534***
	영성	1.06	0.31	0.71	3.39**		
	죽음불안 X 영성	−0.20	0.09	−0.38	−2.26*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A광역시에 거주하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Templer의 죽음불안 척도를 한국판으로 개발한 고효진·최지욱·이홍표[46]의 한국판 죽음불안 척도, 베이비부머에게 적절한 측정도구로 평가되는 Krause[47]의 삶의 의미 척도, 여러 연구에서 중년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적용, 검토된 Ellison[48]의 영적안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이 해소되거나 감소되면 삶의 의미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을 감소 또는 해소시키면 삶의 의미가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하며, 죽음에 대한 불안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유도하여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고된 한미정·최정윤[48]과 정영미[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연관성을 다룸으로써 사랑과 관용으로 더욱 성숙되고 내면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임을 증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성이 삶의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베이비부머의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의 발휘가 삶의 의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박정묘·심혜숙[17], 전경숙[44], Ebersole·Depaola[45], Emmons[2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높은 수준의 영성은 베이비부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적자원으로 이들의 영성과 삶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이 삶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귀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영성이 매개효과를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영성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에서 영성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매개 및 조절효과 분석을 통해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에서 영성이 높을수록 삶의 의미 향상에 더욱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의 관계와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호스피스 돌봄제공자(care giver), 중년 및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Emmons[23], Yüksel·Ferit·Akdag[4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성은 한국인의 삶의 의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영성이 삶의 의미에 정적 상관관계를 밝힌 손은정·홍혜영·이은경[38]과 박정묘·심혜숙[17]에서 중년의 영성이 삶의 의미에 대한 예언 변인임을 검증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영성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베이비부머의 삶의 의미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베이비부머의 죽음불안이 낮을수록 삶의 의미가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의미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베이비부머가 짧은 생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삶의

목표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려면 스스로의 삶에 헌신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51]. 이들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한 활동을 가치 있게 평가할 수 있다면 중년기의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된다[52]. 따라서 베이비부머가 삶의 의미를 지키기보다는 행복의 일종으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사회전반적인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된 죽음불안과 삶의 의미에 영성이 매개 및 조절효과를 갖는 있는 것처럼 죽음불안에 따른 삶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적 접근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의 현대 사회복지는 한국전쟁 이후 기독교 선교사들과 서양인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53]. 따라서 영적관점은 자연스럽게 사회사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 학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지만, 아직도 종교적 비종교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영성을 포함하고 존중하는 방식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서 영성에 대한 사회복지전문직 종사자의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53][54]. 건강한 영성은 삶의 의미, 기쁨, 평화, 만족감과 같은 인간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켜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중 및 지원, 격려 등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존재들로 확장하게 해 준다[30]. 따라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을 통해 베이비부머 개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영성에 대한 감각을 키우게 되면 혼란스러운 갈등의 시기가 닥쳤을 때 상호이해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55].

끝으로 사회복지실천에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영적 돌봄과 삶의 의미를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휴먼서비스와 관련된 다학제간 접근의 연계사업을 고안할 때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많은 경험은 Sarah·King[56] 그리고 Holloway[57]가 제안한 것처럼 인구사회학적 요소, 개인과 조직의 관련성을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배경 안에서 수용 가능한 통합적 교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지역 소수의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모든 베이비부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실천에서 영성을 통합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심리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차원의 관계를 검증해내지 못했다. 따라서 영성의 통합적 유의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이용재,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5호, pp.253-261, 2013.

[2] 정숙균, 방희명, “베이비부머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7호, pp.178-187, 2014.

[3] 길태영, 이진용, “베이비부머의 생산적 활동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성격특성과 행복감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 제44권, 제4호, pp.103-126, 2017.

[4] V. E. Frankl, *The Will Meaning: Foundation and Applications Logotherapy*,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 1959.

[5] N. Mascaro and D. H. Rosen, “The Role of Existential Meaning as a Buffer Against Stress,”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Vol.46, No.2, pp.168-190, 2006.

[6] M. F. Steger, P. Frazier, S. Oishi, and M. Kaler,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3, pp.80-93, 2006.

[7] M. F. Steger, “An Illustration of Issues in Factor Extraction and Identification of Dimensionality in Psychological Assessment Data,”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86, pp.263-272, 2006.

[8] K. Cohen and D. Cairns, “Is Searching for Meaning in Life Associated with Reduced Subjective Well-Bing? Confirmation and Possible

Mediator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13, pp.313-331, 2012.

[9] B. A. Trisel, "Does Death Give Meaning to Life?," Journal of Philosophy of Life, Vol.5, No.2, pp.62-81, 2015.

[10] H. Rappaport, R. J. Fossler, L. S. Bross, and D. Gilden, "Future Time, Death Anxiety, and Life Purpose Among Older Adults," Death Studies, Vol.17, pp.369-379, 2001.

[11] 길태영, "베이비부머대상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미래사회복지연구, 제8권, 제1호, pp.69-99, 2017.

[12] 이상목, 김성연, "삶과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연구," 생명윤리, 제13권, 제2호, pp.1-18, 2012.

[13] 정영미, "중년여성의 죽음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 제5권, pp.121-121, 2013.

[14] W. M. Lamers, "Herman Feifel, the Meaning of Death," Journal of Mortality, Vol.17, No.1, pp.64-78, 2012.

[15] W. White and P. J. Handal,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nxiety and Mental Health, Distress,"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Vol.22, No.1, pp.13-24, 1991.

[16] P. T. P. Wong and A. Tomer, "Beyond Terror and Denial: The Positive Psychology of Death Acceptance," Taylor & Francis, Vol.35, No.2, pp.99-106, 2011.

[17] 박정묘, 심혜숙, "심리기능에 따른 자기효능감, 페르소나, 영성이 중년기 생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1호, pp.311-328, 2009.

[18] 여정숙, 김병석, 최희철, "중년기 성인의 영성, 삶의 의미, 상징적 불멸성과 생산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4권, 제4호, pp.101-120, 2013.

[19] I. C. O. Arrieira, M. B. Thofehrn, V. M. Milbrath, C. R. G. B. Schwonke, D. H. Cardoso, D. H. Cardoso, and J. C. Fripp, "The Meaning of Spirituality in the Transience of Life," Escola Anna Nery, Vol.21, No.1, pp.1-21, 2017.

[20] P. T. P. Wong, *Viktor Frankl's Meaning Seeking Model and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NY: Springer. 2014.

[21] 박선영, 권석만, "삶의 의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임상적 함의," 한국심리학회지, 제31권, pp.741-768, 2012.

[22] 손은정, 홍혜영, 이은경,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2호, pp.465-480, 2009.

[23] R. A. Emmons,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Virtue: Wellsprings of a Positive Life*, In C. L. M. Keyes & J. Haidt(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pp.105-128),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24] N. Mascaro, D. H. Rosen, and L. C. Morey, "The Development, Construct Validity, and Clinical Utility of the Spiritual Meaning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7, No.4, pp.845-860, 2004.

[25] E.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Norton, 1994.

[26] H. R. Moody, "Baby Boomers: From Great Expectations to a Crisis of Meaning," Generations; San Francisco, Vol.41, No.2, pp.95-100, 2017.

[27] P. T. P. Wong, "Personal Meaning and Successful Aging," Canadian Psychology & Psychologie Canadienne, Vol.30, pp.516-525, 1989.

[28] J. Battista and R. Almond, "Th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Psychiatry, Vol.36, pp.409-427, 1973.

[29] E. B. MacKinlay, *The Spiritual Dimension of Ageing*,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1.

[30] S. 1. Takkinen and I. Ruoppila, "Meaning in

Life as an Important Component of Functioning in Old Ag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Vol.53, No.3, pp.211-231, 2001.

[31] E. Mackinlay and R. Burns, "Spirituality Promotes better Health Outcomes and Lowers Anxiety about Aging: The Importance of Spiritual Dimensions for Baby Boomers as They Enter Older Adulthood,"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Vol.29, No.4, pp.248-265, 2017.

[32] J. Marston, "Meaning in Life: A Spiritual Matter -Projected Changes Post-Retirement for Baby Boomers,"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and Aging, Vol.22, No.4, pp.329-342, 2010.

[33] L, Dadfar, "Religiously, Spirituality and Death Anxiety," Austin Journal of Psychiatry and Behavioral Sciences, Vol.4, No.1, pp.1-5, 2017.

[34] M. D. Amenta, "Death Anxiety, Purpose in Life and Duration of Service in Hospice Volunteer," Psychological Reports, Vol.54, pp.975-984, 1984.

[35] M. Y. Yüksel, G. F. Ferit, and C. Akdag, "Investigation of the Death Anxiety and Meaning in Life Levels among Middle-Aged Adults," Spiritual Psychology and Counseling, Vol.2, pp.165-181, 2017.

[36] P. Wink, "Religiousness, Spirituality, and Death Anxiety in Late Adulthood. Journal of Religion," Spirituality & Aging, Vol.18, No.2, pp.93-110, 2008.

[37] D. J. Levinson,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Vol.41, pp.3-13, 1986.

[38] 손은정, 홍혜영, 이은경, "종교성과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와 낙관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1권, 제2호, pp.465-480, 2009.

[39] V. K. Hui and H. H. Fung, "Mortality Anxiety as a Function of Intrinsic Religiosity and Perceived Purpose in Life," Death Studies, Vol.33, No.1, pp.30-50, 2009.

[40] D. J. Levinson, *The Seasons of a Woman's Life*, New York, NY: Alfred A. Knopf, 1996.

[41] R. J. Russac, C. Gatliff, M. Reece, and D. Spottswood, "Death Anxiety across the Adult Years: An Examination of Age and Gender Effects," Death Studies, Vol.31, pp.549-561, 2007.

[42] E. B. MacKinlay, *Spiritual Growth and Care in the Fourth Age of Lif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2006.

[43] M. Y. Yüksel, G. F. Ferit, and C. Akdag, "Investigation of the Death Anxiety and Meaning in Life Levels among Middle-Aged Adults," Spiritual Psychology and Counseling, Vol.2, pp.165-181, 2017.

[44] 전경숙, *한국 중년의 안녕감: 행복과 삶의 의미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집단 간 비교*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45] P. Ebersole and S. DePaola, "Meaning in Life Categories of Later Life Couples," Journal of Psychology, Vol.121, pp.185-192, 1987.

[46] 고효진, 최지욱, 이홍표, "Templer 죽음불안 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15-328, 2006.

[47] N. Krause, "Meaning in Life and Mortality,"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4, No.4, pp.517-527, 2009.

[48] C. W. Ellison,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Vol.11, Vol.4, pp.330-340, 1983.

[49]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pp.1173-1182, 1986.

[50] 한미정, 최정윤, “삶의 의미수준과 죽음불안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67-181, 199.

[51] M. J. Sigrist, “Death and the Meaning of Life,” Journal of Philosophical Papers, Vol.24, pp.83-102, 2015.

[52] K. Setiya, “The Midlife Crisis,” Philosopher's Imprint, Vol.14, No.31, pp.1-18, 2014.

[53] E. R. Canda and H. J. Canda, “Korean Spiritual Philosophies of Human Service: Current State and Prospects,” Social Development Issues, Vol.18, No.3, pp.53-70, 1996.

[54] M. Gray and J. Fook, “The Quest for a Universal Social Work: Some Issues and Implications,” Social Work Education, Vol.23, No.5, pp.625-644, 2004.

[55] M. V. Joseph, “Religion and Social Work Practice,” Social Casework, Vol.60, No.7, pp.443-452, 1988.

[56] J. W. S. J. Sarah and L. A. King, “Work and the Good Life: How Work Contributes to Meaning in Lif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37, pp.59-82, 2017.

[57] M. Holloway, “Spiritual Need and the Core Business of Social Work,”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Vol.37, No.2, pp.265-280, 2007.

저 자 소 개

길 태 영(Tae-Young Kil) 정회원

- 2016년 3월 :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8월 ~ 현재 : 대전중노년교육문화센터장
- 2014년 2월 ~ 현재 : 해금재가노인복지센터장
- 2017년 8월 ~ 현재 :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죽음준비교육, 통합적 노인놀이치료, 동물매개치료 등

류 한 수(Han-Su Ryu) 정회원

- 2006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석사)
- 2010년 3월 : 일본오카야마 현립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학대, 다문화, 조사방법 등